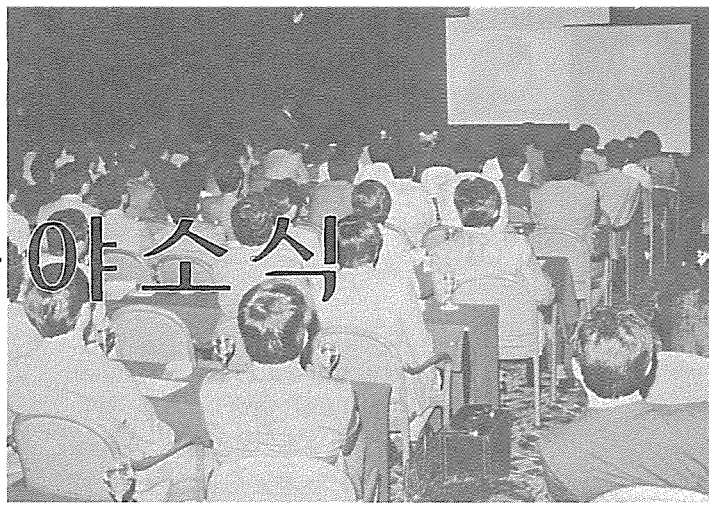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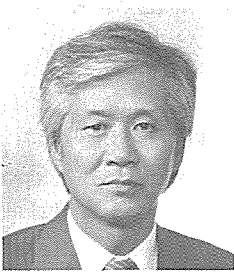


학술분야소식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31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金宗源) 제31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Sheraton Walker Hill 호텔 회의실에서 350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29, 3일간에 걸쳐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新任 李相喆 회장〉

29일 17시 30분부터 열린 31차 정기총회에서는 이사장제를 도입하고 회장선출방법을 바꾸는 등 회칙을 개정하는 한편, 학술대회 개최등 제반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예산, 4,500여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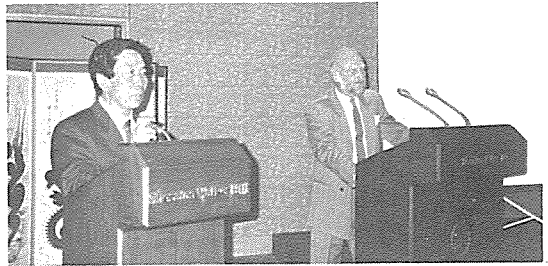
임원개선에 들어가 회장에 李相喆(경희대치대 부속병원장, 부회장에 南日祐교수(서울대치대 구강외과)와 鄭昊均(중앙대의대 용산병원치



〈開會辭를 하는 金宗源회장〉

과)박사를 각각 선임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서독 Rainer, B.Drommor교수를 위시한 특별강연 3연제, 초청강연 3연제, 심포지엄 4연제, 구연 95연제, 포스터 발표 15연제등을 발표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초청연자인 서독 하이델 베르그대학병원 Rainer, B.Drommor교수를 金宗源회장이 소개하고 있다〉



〈心溪 李春根 서울대 명예교수가 心溪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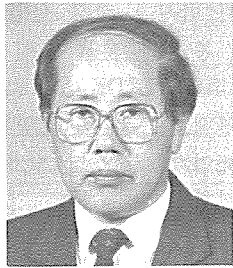


〈理事長제를 도입하고 4,500여만원의 예산안을 확정 한 31차 정기총회장면〉

◎ 대한구강·악안면 방사선학회 제 6 회 한·일 합동세미나 개최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회장 朴兌源)에서는 일본치과방사선학회와 매년 열리는 제 6 회 한일합동세미나를 한국측 주관으로 지난 4월 28, 29양일간에 걸쳐 스위스 그랜드호텔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일본측 학회에서 42명이 참가하여 모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합동세미나의 주제인 「전신질환」에 대하여 한국측에서



〈회장 박태원 교수〉

- 1) 만성신부전증의 방사선 소견 : 단국대 치대 김은경 교수
- 2) 악관절 질환의 CT 소견 : 연세대 치대 박창서 교수
- 3) 악관절 장애의 진단과 치료 : 오오사까치대 마루야마교수
- 4) 악안면영역에서의 전신질환 : 오후치대 시마노교수
- 5) 악관절 내장증의 진단 : 쓰루미치대 고바야시 교수 등 5개 연제를 위시하여 20연제의 포스터 발표에 있어서는 제출자가 각각 15

분씩 내용설명을 함으로써 참가회원의 관심을 모았다.



〈한일합동 세미나 특강장면〉

◎ 대한치과기재학회 학술집담회 성료

대한치과기재학회(회장 : 최옥환)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시 치과 의사 신용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제68회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의 계기성교수는 『치아 지지 및 유리단 국소의치의 precision attachment에 관한 설계』라는 연제하에 강연을 진행 하였다. 다음은 이날 행한 강연내용을 초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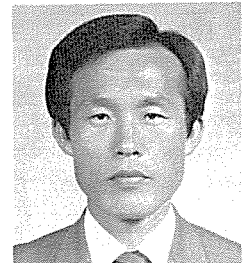
〈최옥환 회장〉

= 초록 =

치아 지지 및 유리단 국소의치의 precision attachment에 관한 설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계 기 성 교수



〈연자 계기성교수〉



〈포스터발표장에서 연자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직접 유지장치라는 것은 국소의치가 조직에서 탈락하려는 것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대치에 장착되는 국소의치의 일부분을 말하고 대부분의 국소의치 attachment는 intracoronal attachment와 extracoronal attachment로 분류된다.

I. Intracoronal attachment와 Extracoronal attachment

Intracoronal attachment는 지대치의 retainer에 부착된 keyway(female)내로 국소의치 framework에 부착된 key(male)가 들어감으로써 보철물의 유지를 얻고, 치관내에 연결점을 두며 extracoronal attachment는 치관밖에서 유지를 얻으며 치관외에 연결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Intracoronal attachment는 non-resilient type이고, 연결점은 교합압이 지대치에 의하여 흡수가 잘 되도록 치아의 midline에 가깝게 설계되어야 한다. 반면 extracoronal attachment는 거의 언제나 resilient type을 설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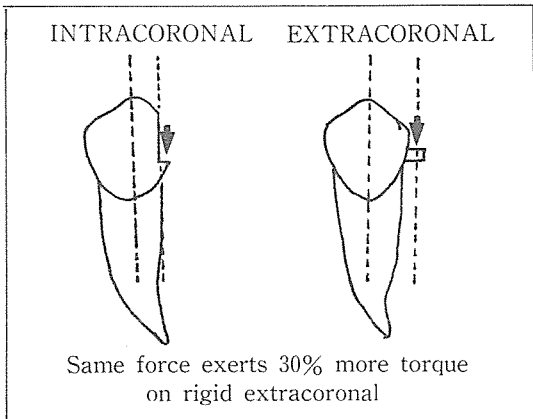


그림 1.

- 1) Intracoronal attachment의 대표적인 예 : Stern G/L, Stern G/A, Stern type 7, CM-Box, Biloc 등
- 2) Extracoronal attachment의 대표적인 예 : Ceka, Dalbo, Octolink, Gilmar 등

II. Non-resilient type과 resilient type

Non-resilient type(rigid type)의 attachment는 매우 제한된 운동만 허용하는 것으로서 resilient type보다 운동이 적기 때문에 교합을 보다 좋게 유지할 수가 있으며 지대치에 보다 많은 교합압을 전달하여 지대치와 치조제 조직에 균등하게 load를 분산시키고 resilient type의 attachment는 치조제 점막을 통하여 교합압을 보다 많이 가하게 하고 지대치에는 교합압이 덜하게 설계한다(그림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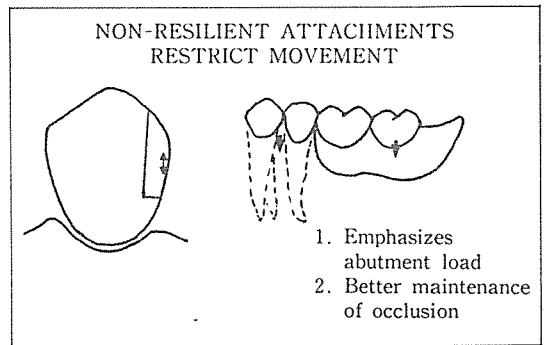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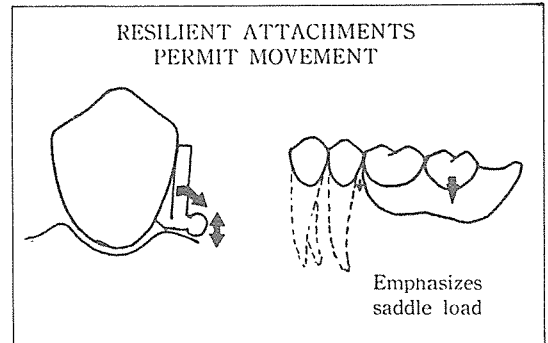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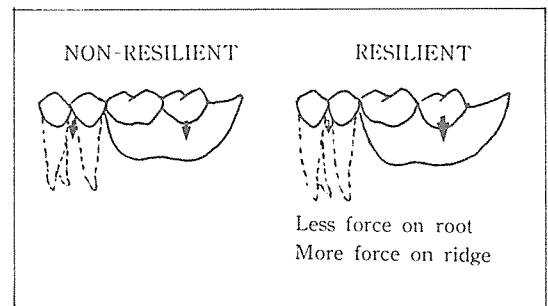


그림 4.

- 1) Non-resilient type(rigid type)의 예(그림 5)
- 2) Resilient type의 예(그림 6, 7)

III. Precision attachment의 선택문제

- 1) intracoronal attachment를 먼저 고려한다.
- 2) 지대치가 너무 적으면 resilient extracoronal attachment를 고려한다.
- 3) 지대치가 너무 약하면 resilient extracoronal attachment를 고려한다.
- 4) 상하악 치아간의 수직간 거리를 측정하여 적절한 종류의 attachment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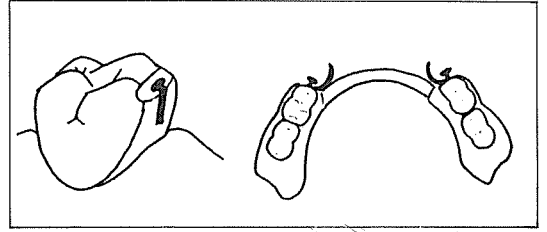


그림 5. Stern G/A를 이용한 측성 유리단 국소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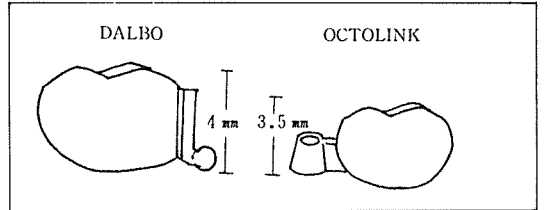


그림 6.

IV. 기타 Hinge type attachment

대표적인 예로서 Gilmar attachment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Gilmar removable hinge type은 어느 hinge type보다 성능과 재질이 우수하여 유리단 국소의치 경우에 해당되는 우수한 hinge type attachment로서 지대치에 가해지는 stress를 saddle area에 분산시켜주는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으며 설계시 Gilmar hinge axis는 수평수준과 평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회전 중심은 alveolar crest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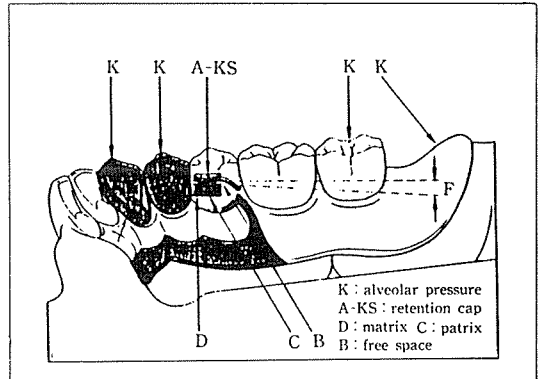


그림 7. Resilient extracoronal Ceka attachment를 이용한 양측성 유리단 국소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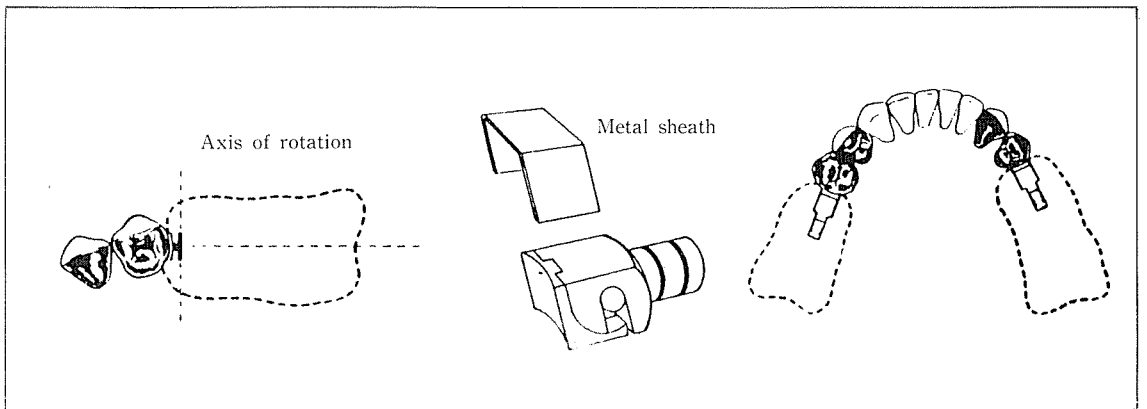


그림 8.

◎ (가칭)심미치과학회 월례 학술
집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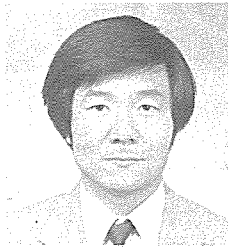
가칭심미치과학회(회장 李在賢)에서는 지난 25일 동학회 회의실에서 월례학술집담회를 개최한바 있는데 李樛鳳교수의 「메릴랜드 브릿지」와 崔大均교수의 「치아마모 증환자의 심미성 회복을 위한 보철학적 고려사항」에 대한 강연을 각각 실시하여 참석한 50여회원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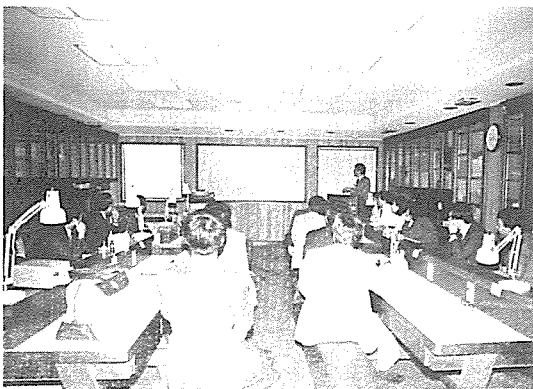
<李在賢 회장>

◎ 가칭 대한미형치과학회 학술집
담회

가칭 미형치과학회(회장 劉英浚)에서는 지난 4월 28일 한국치과교정연구회 회의실에서 다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경복대치대 경희문교수를 초빙 「Principle and clinical case of lingual orthodontics」에 대한 학술집담회를 가진바 있다. 동학회의 英文 標記는 The Korean Academy Esthetic Dentistry이다.



<회장 劉英浚박사>



동학회 집담회 장면

◎ Pierre Fauchard(P.F.A)韓國會
제11회 정기총회 성료

PFA한국회(회장 이정석)는 지난 3일 세종호텔에서 제11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김홍기씨를 신임회장으로 추인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총회에 앞서 무궁화홀에서 <신임회장 金鴻基 박사> 2시간동안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치과대학 中原 泉교수의 「Pierre Fauchard 탐방」과 이근후교수(이대의대 정신과장)의 「여행과 정신건강」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뒤에이어진 총회에서는 지난회기의 회무·결산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었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지난회기에 차기회장으로 피선됐던 김홍기씨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회장에 지광원씨를 선출하는 한편 신임감사로는 유양석, 김유봉씨 선출했으며 회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에는 김기혁씨를 선출했다.

새회기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에서는 년 4회의 할술강연회 개최, 정기간행물(Newspaper)발간, 국제교류강화, 한·일합동회의의 개최 등 7개항목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천 1백여만원규모의 새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9명의 신임회원에 대한 인준식도 가졌는데 신임회원은 조행작, 차신정, 김성욱, 배유홍, 조한준, 임학순, 고일봉, 이영수, 이성민씨 등이다.



Pierre
Fauchard
홍상